

전남 대형건설사업장 3곳중 1곳 ‘안전불감증’

현장 감리자 없고 골조공사 설계와 다르게 시공

공동주택·5000㎡이상 사업장 86곳중 25곳 적발

전남지역 대형 건설 사업장 3곳 중 1곳이 필수인력인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없거나 골조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4일 “부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축물과

방치된 사업장 86곳을 점검한 결과 25곳에서 9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축 현장 1곳당 위반 사항은 평균 4건에 달했다. 점검 대상은 일반 건축물은 전체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이다. 또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아파트 17곳도 포함됐다.

부설시공 등 안전이나 품질관리 불량과 밀접한 위반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골조공사에 철근 배근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단열재 부족 시공, 이음 불량 등 부설시공이 무려 38건 적발됐다.

공사 안전과 관련, 경사지 절개면의 보호조치나 배수조치 소홀, 안전 시설 미설치, 혼합폐기물 현장 방치

등도 28건에 달했다.

또 건설사업장에 상주해야 할 공사 감리자와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감리원 등이 시공계획서 검토와 확인작업을 소홀한 하 사례 31건도 지적됐다.

전남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개 현장 28건에 대해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감리회사(원)에 부설 발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토록 했다. 나머지 69건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오

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 명찰환 안전행정국장은 “대형 건설사업장의 부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연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해 부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시설하우스 1만5천동 ‘비규격’

태풍·폭설에 취약

태풍이나 큰 눈이 오면 전남지역 시설하우스가 폭삭 주저앉는 이유가 있었다. 이 지역 시설하우스 1만5000여동이 태풍과 폭설에 취약한 비(非)규격 하우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설하우스 가운데 보강지구 설치 대상면적은 1101ha에 1만9304동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성 185ha, 곡성 177ha, 담양 163ha, 광양 149ha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 설치를 완료한 곳은

302ha에 479동으로 면적 대비 27.4%, 동수로는 21.1%에 그쳤다. 나머지 799ha(72.6%), 1만5226동(78.9%)은 설치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다. 시설하우스 보강이 더딘 것은 태풍에 버틸 수 있는 규격형으로 바꿀 경우 10a(990㎡)당 2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지난 2010년 폭설로 시설하우스 26ha, 500여동이 주저앉았으며 2005년 폭설에는 수백여원의 피해가 났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알카에다 테러 임박?

美 해외여행 경계령

서방국 잇단 주의 당부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알카에다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알카에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역시 알카에다가 이달 중으로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경계령을 내렸다.

국무부는 “특히 지금부터 8월 말 사이에 테러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테러 가능성이 있고 대중 교통수단과 관광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사태는 미국 정보 당국이 알카에다 고위 요원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감청하면서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감청에서 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논의한 사실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미 하원의 피터 킹(공화·뉴욕) 대테러 및 첩보 소위원회 의장도 여행 경보를 촉발한 알카에다의 위협이 ‘매우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요르단 등 17개국 21개 대사관과 영사관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4~5일 예멘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했다가 오후에 돌아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북 현정은, 김정은 친서 받아

정몽헌 추모식서… “개성공단 문제 언급없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자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이 남측 인사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했다가 오후에 돌아온 현 회장은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터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김 제1비서의 구두친서는 ‘정몽헌 전 회장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정몽헌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두친서에 명시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의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안’에 일주일이나 되도록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등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현 회장은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북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靑 “朴대통령 트위터 팔로어 33만여명”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라우드 지수가 82로 청와대의 지수인 78.4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클라우드 지수는 미국의 SNS 영향력 평가체인 클라우드(Klout)가 접근성이나 파급력 등 수십 개의 변수를 고려해 개인이나 기관의 SNS계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홈페이지, 블로그와 별도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 4

개의 SNS 계정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도 개인 계정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클라우드 지수가 청와대보다 높은 82로 나타났다”며 “취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대국민 소통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 팔로어 수는 33만8000여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4만 1000여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사, 4~10일 노르웨이 수산시설 탐방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역 수산 양식업 발전 방안 모색하기 위해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 방문한다.

박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방문단은 4~10일 노르웨이의 수산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둘러본다.

이 방문단에는 수산물 수출 양식단지(양식 섬)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완도·진도·신안군수와 한국수산과학원 총연합회장,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장, 바다 송어 영어조잡법인 대표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트론헤임, 스타방에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양식기업 EWOS



사, 뛰어난 수산 연구 실적을 올리고 있는 NT-NU 대학 등을 방문해 기업형 수산업 육성, 기술인적교류 등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150여개국에 연어, 고등어, 넙치 등을 수출하는 세계 2위의 수산 강국으로 연어의 연간 수출액만 6조원에 달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앞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액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 사 모 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〇〇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 귀농지, 전원주택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 펜션, 관광농원 등 다용도)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 전원주택, 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